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9년 3월 15일 | 총권 48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라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그림책으로 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없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성찰할 때 '나의 죽음'은 건너뛰고 타자의 죽음으로만 논한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초등학생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다. 식물이나 애완동물의 죽음은 물론이고 영화나 책 속에서 만나는 죽음, 실제로 조부모나 부모, 심지어는 친구의 죽음을 겪기도 한다. 죽음이 노출된 사회에서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는 삶과 함께 있는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다. 서양에서는 1960년대부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죽음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은 공교육이 꼭 해야 할 일이다. 죽음 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몰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수성을 조장하는 데 있다고 했다. 죽음에 노출된 사회를 살아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죽음의 개념을 내면화하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사랑하기 위한 죽음 교육이 필요한 시대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음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갖는 충격, 두려움, 비탄, 상실감을 제때 충분히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못하면 죽음이 부정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통한 죽음교육은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책 안에서 미리 만나보게 함으로써 진짜 죽음을 겪었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자들의 죽음과 사별을 지켜보는 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다.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제자가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그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이, 안동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죽을 다 잃고 혼자만 남겨진 아이도 있었다. 나 또한 죽음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

야 할지 몰라 아이들의 상실 극복과 애도를 돕지 못했다. 교사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그때부터 그림책을 통해 죽음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17년간 교실에서 '삶과 함께하는 죽음에 대한 교육'에 활용한 그림책은 270여 권쯤 된다.

아이들은 죽음과 상실을 담은 그림책 함께 읽기를 한 후 쓴 글을 통해 '삶과 함께하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죽음을 막연하게 이해했지만 교육 이후에는 삶과 함께 하는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됐다." 또한 "그림책의 내용을 통해 죽음 관련 기억들을 무겁지 않게 상기할 수 있었고, 상실 경험과 사회적 죽음을 언급할 때 그림책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아이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아이들은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죽음 자체에 몰입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글쓰기 활동 결과물에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세부적으로 반영되었다.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은 죽음의 인식을 돕고 삶을 보다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어서 죽음 교육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아동의 교육 영역에서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써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의 결과는 즉시적인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단단히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삶과 함께하는 죽음에 대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끌어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성 교육의 본질을 담고 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최고의 삶 공부다.

임경희 | 학도넷 운영진, 서울 성지초등학교 교사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에서 만난 책들
연수에 참가한 선생님들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홍성우 / 안예화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몰입독서로 꽃피는 우리학교

- 이규선(꿈의학교 도서관담당교사)

꿈의학교는요~ 충남 서산에 있는 기숙형 기독교대안학교로서, 중·고등 과정 약 300명의 학생들과 60여 명의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 www.dreamschool.or.kr / 도서관 담당 교사 : 이규선 dyingwheat@dreamschool.or.kr

“선생님~ 신청곡이요~~~~!”
“Paris in the rain~~! 듣고 싶어요~~!”
3교시와 4교시 사이 쉬는 시간, 중학교 3학년 54명으로 꽉 찬, 일반교실 2.5배 크기의 도서관은 한마디로 ‘시장 바닥’입니다. 신청한 음악을 들으며 4교시에 읽을 책을 고르는 아이, 도서관이 운동장인 양 뛰어다니는 아이, 바닥에 벌러덩 누워 친구들과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 웅기증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떠는 아이들, 스피커 소리 키워달라고 소리 지르는 아이,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빨리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 연체됐는데 좀 빠주시면 안 되냐고 애원하는 아이, 배고픈데 먹을 거 없냐며 장화신은 고양이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는 아이... 정신없는 그 10분이 지나면, 이젠 제가 소리 지를 시간이 됩니다.
“자~ 몰입독서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두 눈을 부라리며 앙칼지고 야무지게 딱 세 번 정도 이렇게 외쳐 주면, 이리저리 방황하며 까불던 54명의 학생들이 어느새 도서관 지정석에 앉아 각자 고른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합니다. 월~금요일 매일 4교시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중학교 3학년 몰입독서 수업 풍경입니다.
몰입독서. 말 그대로 몰입해서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에 있고 변화의 출발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시작된 독서교육 중심의 대안학교 꿈의학교에서는 ‘독서’가 국, 영, 수 못지않게 중요한 주요 교과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책 읽을 시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몰입독서’라는 수업 시간이 생겼습니다. 꿈의학교 중등 과정에 입학하면 3년 동안 몰입독서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신이 고른 책을 30~40분 정도 읽고, 매월 2~4편의 감상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도서관 이용률이요? 몰입독서 시간에 읽을 책이 있어야 하니 학생들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도서관에 올 수밖에 없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하교 이후 도서관은 책을 반납하고 빌리러 오는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몰려와서 재밌게 읽은 책들 서로 추천해 주기도 하고 대출한 책을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가며 읽는 모습은 우리 학교에선 너무 익숙한 풍경입니다.
몰입독서 수업을 통해 매일 책 읽는 습관과 기본 독서력, 사고력 및 글쓰기 실력의 기초를 다진 학생들은 고등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독서 수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등 1학년 독서 수업에서는 교사가 한 학기에 한두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한 책들을 제시해 주면 그 중에서 자신이 직접 몇 권을 선택하여 읽고 서평을 쓴 뒤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에세이를 학기말 과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주 4시수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책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1 수업을 맡고 계신 선생님은, 중등 몰입독서 수업을 통해 기본기가 잘 닦여진 덕분에 이런 수업이 가능하라며 몰입독서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곤 합니다.
고등 2, 3학년에는 개인 독서 및 토론, 서평쓰기는 물론이고 자신만의 책을 출판하는 ‘책 쓰기’수업을 비롯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심도 있는 독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고3도 독서 수업을 하나요? 입시 때문에 바쁜 그 고3들이?
물론 고3학생들에게 독서 수업은 선택이긴 하나, 이 독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마다 담당 선생님이 웃을까 울까 망설이신다는 행복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우리 학교 독서 수업을 소개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학교 독서 교육의 꽃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고2 ‘책 쓰기 수업’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쓰기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책을 쓰고 정식으로 출판하는 수업입니다. 1학기에 책의 초고를 완성한 후 2학기에는 교사의 코칭을 받으며 다듬어서 시중 서점의 1인 출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출판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책 출판을 완료되면 교사들의 심사를 거쳐 6~7권의 우수한 책을 선정하여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책 출판 기념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올해의 작가상’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책 출판기념회가 끝난 다음 날, 도서관은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며 선배들의 책을 빌리러 오는 후배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자기도 빨리 고2가 되어 책 쓰기 수업을 듣고 싶다고, 자신만의 책을 기여이 출판하고 말거라고, 지난 밤의 흥분이 다 가지지 않은 표정으로 도서관을 찾아와 얘기하는 중학생들을 보면서 독서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독서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은 깊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력과 성품을 갖추어 나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그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장소로 오늘도 꿈의학교 한복판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 도서관에 자주 문의하시는 한 수학 선생님께서도 최근 이런 카톡을 보았습니다.
‘도서관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는 도서관, 나아가 계속 자라가는 도서관이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

강남중학교는 도서관소식지 <글마루통신>을 발행한다.

기자단인 글마루친구들은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소식을 기사화하고 학교밖 의미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탐방활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최은규 사서선생님의 지도가 돋보인다.

꼬불꼬불 종로 골목길 탐험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우리 글마루친구들은 종로의 '체부동 예술가의 길' 탐험을 떠났다. 이 길에서 이상범, 천경자와 같은 화가, 윤동주, 이상과 같은 작가, 그리고 멀리로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예술가로 잘 알려진 안평대군의 흔적까지 만날 수 있다. 현재 이곳은 한창 개발이 되고 있어,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곳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 종로구청에 미리 예약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골목길 해설사 두 분을 만났다. 역사, 예술, 건축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알고 계신 골목길 해설사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일화도 재미나게 소개해 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골목길을 헤엄치듯 돌아다녔다.

체부동 교회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신교 교회이다. 한옥 밀집지에 유일하게 벽돌로 지어진 서구식 건물인데 현재 공사 중이다.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벽돌건축물이라고 한다.

이상범 화백의 집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일반인들의 방문이 가능하다. 2005년 4월 15일 등록문화재

제171호로 지정되었는데, 1930년대에 지은 도시형 한옥 건물이라고 한다. 생활을 하던 공간과 그림을 그리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분이 읽던 책, 쓰던 물감 등이 아직도 볼 수 있다.

박노수 화백의 집은 현재 구립 박노수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 집은 원래 친일파 윤덕영이 딸에게 지어준 집이라고 한다. 탄탄한 건물과 정원을 보니 힘겨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친일파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를 단번에 가늠할 수 있었다.

수성동 계곡에 지어진 안평대군의 집 '비해당'은 현재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건넌다녔을, 겸재 정선이 그림으로 남긴 기린교가 아직도 거대한 바위 사이에 걸려 있어 오래 전 조선시대의 이곳을 한번 상상해 보게 한다.

윤동주 시인이 하숙을 했었던 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새롭게 지어진 지 오래였다. 천경자 화백과 노천명 시인이 살았던 집도 현재 공사 중이라 그 자태를 볼 수 없었다. 시인 이상의 집은 개조가 되어 현재 전시관으



로 이용되고 있다.

예술가의 길 탐험을 끝낸 우리는 통인시장으로 건너갔다. 통인시장은 상인들이 만든 시장공동체를 통해 운영되며 엽전을 사용한다. 우리도 엽전으로 음식을 바꾸어 먹으며 색다른 느낌을 경험했다. 꽤 긴 코스였지만 예술가들의 자취와 통인시장 먹거리에 행복한 포만감을 느낀 보람차고 재밌는 활동이었다.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 또는 친구들이랑 함께 간다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체부동 예술가의 길 탐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종로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 유예린 기자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기

지난 4월 14일, 글마루 친구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미리 읽어둔 안 의사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활약 등을 더 생생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버스를 한 시간 즈음 타고 기념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우뚝 서 있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보였다. 그 앞에서 도슨트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곧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다.

안중근 의사는 성인이 된 직후부터 만주로 넘어가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왼손 마지막 약지를 끊은 후 단지동맹을 맺는 등 독립과 항일투쟁에 대한 마음을 나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얼빈으로 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1909년 음력 9월 13일, 안 의사는 운명처럼 하얼빈역

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맞닥뜨리고 그를 총으로 저격하여 의거에 성공한다.

결국 안중근 의사에게는 2월 13일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흉악범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이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에 죽어 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안중근 의사에게 존경심을 품은 일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의 멋진 글씨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안 의사를 잘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는 3월 26일 사형을 당해 순국했다

한번 상상해 본다. 내가 당시에 태어났다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조마리아 여사였

다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솔직히 상상만으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얼빈 의거를 행했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한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그의 의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말해본다.

- 박슬기 기자



인천에서 만나는 세 나라

날씨가 화창한 10월의 가을날, 우리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나들이를 갔어요. 월드커뮤니티센터의 투어코디네이터 분들의 도움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골목골목 이어지는 예스럽고 독특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죠. 우리는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송도 운하에서 배를 타고서 쪽쪽 뻗은 건물들도 보았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신비롭게 뒤섞인 것 같은 하루였어요.

차이나타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천에는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차이나타운

이 있다. 곳곳에서 풍겨오는 양꼬치 굽는 냄새, 공갈빵 냄새 등이 이국적이다. 일본인들이 100여 년 전에 세운 목조 가옥들도 이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찬찬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역사 속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차이나타운은 1883년 개항 후에 청나라가 인천을 조계지(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설정한 구역)로 설정하며 만들어졌다. 일자리를 찾아 청나라를 떠나 온 중국인들이 이곳을 작은 중국으로 만들었다.

언덕을 따라 길게 놓인 계단(청·일 조계지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서쪽이 중국인들의 구역이라면 동쪽은 일본인들의 구역이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인 거주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지금의 인천 중구청 자리에 일본 영사관을 세웠다. 그리고 '일본제1은행', '일본제18은행' 등 일본 은행의 지점을 이곳에 세워 조선 수탈로 벌어들인 돈을 일본으로 보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이 은행 건물들은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박주영 기자

‘삶과 죽음’에 대하여

지난 겨울방학 학도넷 사서연수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에서 만난 책들을 연수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서평을 썼습니다.



무릎딱지

사름로트 문드리크 지음/올리비에 탈레크 그림/이경혜옮김/한울림어린이/2010년 10월

엄마를 잃은 아이를 통하여 상실의 아픔을 지나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담담하게 보여준 그림책이다.

죽음은 어찌 보면 죽은자 보다도 남은 사람의 몫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었을 때의 슬픔, 배신감, 고통, 그리움 등을 아이의 눈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수용해나가는 모습을 무릎딱지에 새 살이 차는 것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

윤정숙(부산지역 활동가)



오소리의 이별 선물

수잔 발리 지음/신형건 옮김/보물창고/2009년 3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고 맞이하는 오소리. 오소리를 잃은 슬픔에 빠져 지내던 친구들은 함께했던 추억을 얘기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비로소 슬픔을 극복한다. 오소리를 마음으로부터 편안하게 보내주는 모습이 죽음은 결코 무섭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애도란 어떤 것인지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 같다. 평소에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고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준 오소리의 따뜻한 마음과 그가 떠난 후 친구들의 마음속에 선물처럼 자리한 추억이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안경애(강화 내초등학교 사서)



할머니가 남긴 선물

마거릿 와일드지음/론 브룩스그림/최순희옮김/시공주니어/1997년 10월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본다. 오랫동안 모든 일을 함께한 할머니와 손녀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 가을 풍광, 손녀의 걱정과 슬픔이 푹 푹 묻어나는 그림, 그래서 더 아프다. 할머니의 마지막 잔치는 살아온 흔적들과 인사하는 시간이다. 하늘, 바람, 구름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주변을 정리하는 담담함, 울지 않는 할머니와 손녀는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더 아름다운 봄날이다.

남경화(노원어린이도서관 자원활동가)

마음이 아플까봐

올리버 제퍼스지음/이승숙옮김/아름다운사람들/2010년 11월

인간에게 소중한 존재와의 헤어짐은 어린이뿐만 아니



라 어른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 주인공인 소녀는 상처를 치유할 생각도 못하고 외면한다. 그러나 이 책은, 마음의 상처를 꼭 적극적으로 치유할 필요가 없고, 시간에 맡겨도 된다고 말한다. 독자의 마음을 가볍게 해 준다.

손도영(미국 작은도서관도서관 자원활동가)



내가 함께 있을게

볼프 에를브루흐 지음/김경연옮김/웅진주니어/2007년 10월

그림책으로 보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담론.’

죽음에 대한 위로나 부정이 아니라 죽음도 곧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거부감이나 두려움 없이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책이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뒤를 따라 다니고 있는 죽음을 발견 한 오리, 그리고 어느새 죽음과 친구가 된 오리와 오리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 주는 죽음. 죽음과 삶의 유기적인 관계를 쉬운 언어로 담담하게 그려내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이 제한 없이 누구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박정숙(화성 한울초등학교 사서)



사과나무 위의 죽음

카트린 세러 글·그림/박선주 옮김/푸른날개/2016년 10월

‘죽음’은 말한다. “다들 죽는 걸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엔 내가 꼭 필요해요.” 이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는 마치 하나로 연결된 듯 여우 할아버지와 ‘죽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표현한 듯하다. 누구나 죽음이 두려워 피하고 싶지만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한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까? 이 책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박현주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사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브라이언 멜로니지음/로버트 잉펜그림/마루벌/1999년 11월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너무도 명쾌한 첫 문장이다. 삶과 죽음에 대해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때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개구쟁이 아이는 숨소리도 줄이고 글과 그림에 몰입한다. 책 한 권

을 통해 세상의 근원적인 이치를 단숨에 깨닫게 된다. 아이도 엄마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최진영(여주 매류초등학교 학부모)



내가 가장 슬플 때

마이클 로젠 지음/퀸틴 블레이크 그림/김기택 옮김/비룡소/2004년 10월

4.16 세월호 참사 5주년이 다가오는 즈음, 이 책을 펼치고 한참 먹먹했다. 횡한 눈동자에 웃는 얼굴의 주인공 모습이 슬픔 그 자체인 듯 고

스란히 나에게 전해져 왔다. 아들과의 행복했던 시간의 정지가, 함께 할 시간의 부재가, 남겨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추억 속 장면 하나하나가 보여준다. 슬픔을 받아들이기 위해 촛불을 담담히 마주한 그를 보고 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어 그림책을 덮었다.

강정미(병과 그림책 협동조합)



나는 죽음이예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지음/마린 슈나이더 그림/장미경 옮김/마루벌/2017년 4월

죽음이 찾아오면 나는 문을 열어주리. 읽던 책을 덮고 뜨개질하던 손길 멈추고 죽음을 바라보리. 죽음이 손을 내밀면 맞잡고 한발 한발 천천히 걸으리. 문을 열면 땅을 댄 자리에 죽음이 있었다는 걸 나는 알지. 죽음은 사랑의 다른 말. 모든 슬픔과 미움을 없애주는 마법사. 죽음은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곳이면 어디든 있지. 나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는 길동무. 나 떠난 자리에 꽃 피고 나비 날아오면 새봄이 오듯 죽음은 삶을 예약하네.

황동옥(병과 그림책 협동조합)



오래 슬퍼하지 마

글렌 린트베드 지음/살로테 파르디 그림/안미란 옮김/느림보/2007년 11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꿈꾸지 않는

다.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산다. 이 책은 할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하면서 죽음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직설적이고 솔직한 대사가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준다.

이유나(충남 당진고 사서교사)

내가 권하는 책

백만번 산 고양이

사노 요코 지음 / 김난주 옮김 / 비룡소 / 2002년 10월



백만 번을 죽고, 백만 번을 살았던 고양이의 단 한 번뿐인 삶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첫 문장부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백 만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백만 번이나 죽고 백만 번이나 살았던 것이죠.’ 사람이나 고양이나 죽음은 한 번뿐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첫 문장에 이어 ‘백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 했고, 백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에 이르면 ‘백만’이라는 주문에 홀려 그 고양이의 특별함에 빠져들게 된다.

한때 고양이의 주인이었으나 결코 고양이의 마음을 사지 못했던 임금님, 뱃사공, 마술사, 도둑, 홀로 사는 할머니, 여자아이. 이들은 고양이를 곁에 두고 귀여워했으나,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지 못한다. 소리 내어 울며 고양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주인과 단 한 번도 울지 않는 고양이는 차갑게 대조된다.

그런데 더 이상 누구의 고양이가 아닌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을 때, 얼룩무늬 도둑고양이는 하얀 암고양이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새끼 고양이들이 자라 제 갈 길로 떠나고, 얼룩무늬 고양이는 할머니가 된 하얀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

처음으로 삶을 탐냈으나, 얼룩 고양이도 하얀 고양이의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 얼룩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고, 밤낮없이 백만 번이나 울던 얼룩고양이는 결국

하얀 고양이 곁에서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로써 백만 번이나 반복하던 이전의 죽음은 거짓 죽음이었음을, 죽음이 거짓이었으니 이전의 삶 역시 진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는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은 후,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이 책이 뭘 말하는 것 같아?”

“살려면 제대로 살라는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엄마는?”

“난 사랑! 사랑을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 옆에 있던 딸에게도 물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다는 것 아닐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작가가 이 책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더욱 궁금해진다. 백만 명의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답은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처음 읽은 아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백만 번을 물어보아도 때마다 답은 다를 것 같다.

죽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수채화로 전달된다. 얼룩고양이의 눈빛은 표지부터 푸르고 당돌하다. 암컷 고양이들의 구애를 받을 때 바위 위에 올라서 눈을 지그시 감고 포효하는 모습은 자신만만의 극치다.

그런데 내 마음을 울린 그림은 하얀 고양이가 죽었을 때 얼룩고양이가 울부짖는 장면이다. 목청이 보이도록 크게 벌린 입가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흐른다.

얼룩고양이가 백만 번이나 죽었을 때 백만 명의 사람들이 흘린 눈물을 다 모아 놓은 듯이, 자기가 백만 번이나 죽었을 때 흘리지 못한 눈물을 이제야 다 쏟아내 듯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얼룩고양이 품에서 하얀 고양이는 단잠에 빠진 듯 평화롭다.

이런 게 사랑일까?

사랑이 클수록 아픔이 깊을 수밖에 없는, 후회 없는 사랑을 했기에 부활의 유혹조차 포기할 수 있는, 죽음을 받아들여 삶을 완성하게 만드는.

이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도 겹쳐진다. 차가운 바다에서 나온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부모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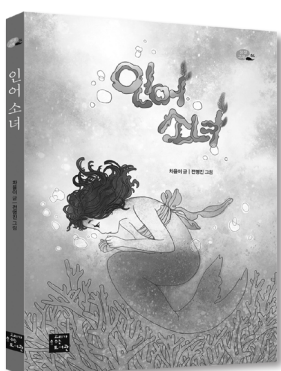
2014년 4월 16일, 부모는 아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다. 두 번 다시 그 이전으로 되살아날 수 없다. 슬픔의 고통으로 멈춰버린 삶이 차마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5년 전 그날의 죽음이 이제는 ‘진짜’ 죽음이기를. 이전의 삶이 사랑이었음을 확인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꾸겠노라 약속하는 이 땅 마지막 죽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100만 번 산 고양이>는 백만 명의 주인과 살면서 백만 번 죽었다. 자신만의 고양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한 번 제대로 죽었다. 이 책을 읽은 백만 명의 사람을 품을, 백만 번의 질문을 나에게 던져 본다. 너는 지금 누구의 것이냐고, 너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을, 죽음으로 완성될 진짜 네 삶을 살고 있냐고.

이민수(서울 삼정중학교 교사)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상상 고래 시리즈!



인어 소녀

인어가 주인공인 국내 최초 해양 판타지 동화! 기형 인어들이 들려주는 플라스틱 섬의 진실! 제주도와 인어 세계를 넘나드는, 혼혈 인어 규리의 바닷속 성장 모험담!

인어 소녀 규리는 사라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차율이 글 | 전명진 그림 | 152×225mm | 180쪽 | 12,000원



승례문에서 사라진 어처구니

승례문에서 사라진 어처구니는 어디로 갔을까?

안재희 글 | 이구산 그림 | 152×225mm | 180쪽 | 12,000원 | 초등 중학년 이상



독도와 인어

외딴섬 독도와 그곳을 지키는 어린 인어의 이야기!

김정현 글 | 이수민 그림 | 152×225mm | 176쪽 | 12,000원 | 초등 중학년 이상



모지 공주

제1회 교보문고 동화공모전 전래동화 최우수상 수상작!

차율이 글 | 박병욱 그림 | 152×210mm | 148쪽 | 11,000원 | 초등 중학년 이상

인문캠프in여주

- 안예화(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조선족중학교 교사)

<편집자 주>

여주지역 중·고등학생 청소년독서동아리 '싸댕'이 2018년 8월 여름방학,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조선족중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교류를 가졌었지요(학도넷 2018 겨울호 6면 참고). 이어서 겨울방학에 반가운 답방이 이루어졌어요. 2019년 1월 16~19일까지 3박 4일 여주시와 여주사람들 초청으로 10명(학생 8명 교사 2명)이 한국을 방문해 두 지역 학생들이 다시 정겨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주사람들·싸댕과 함께 하는 인문캠프에 우리 흑룡강성 녕안시조선족중학교 8명의 학생들이 초청을 받아 3박 4일간 한국에서 여러 체험을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4일간의 좌충우돌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반 설렘반으로 출발~ 고고를 외쳤던 우리 아이들~ 역시나 새시대의 청소년답게 패기와 자신감으로 뚝 넘어 넘쳤습니다.

오후 7시 인천공항에 도착 후 인솔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간 곳은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이었습니다.

지지향의 매력포인트는 바로 “지혜의 숲”에 있었습니다. 즉 풀어보면 이 곳에서 1박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내 시간제한이 없이 1층 라운지에 내려와 책을 볼 수 있게 수 많은 책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방에도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보기 좋아하는 손님들한테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하여 지지향을 일부러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로비의 곳곳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긴 터널 양쪽에도 책들이 준비하게 진열되어 있었으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녕안의 독서벌레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너도나도 앞다투어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순간 흐뭇한 기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책도 보고 수도다 떨면서 하룻밤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식은 역시 지지향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조식 후 활판공방 체험하러 고고싱~

사라져 가지만 공존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 옛 인쇄문화와 근대 활자문화의 역사적가치를 알기 위해 마련된 체험활동 - “활판인쇄”

특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활자와 인쇄의 발전과정을 견학하고 책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하여 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즐거움을 이끌어내 자발적인 독서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주요취지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도 강의를 귀담아듣고 한명 한명 자기의 이름을 찾아서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들의 이름도 인쇄하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아주 예쁘게 인쇄를 해내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귀담아듣는 아이들의 모습~ 앞다투

어 자기의 이름을 찾는 아이들~ 자기의 이름을 열심히 꽃아 넣는 모습~

주조 - 문선 - 조판 - 인쇄

활판공방 체험을 열심히 했더니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밥달라고 신호를 보내네요~ 오후 스케줄을 위해 밥부터 든든히 먹어두려고 뷔페식당인 쿠우쿠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도 마음이 “두구두구두구” 할 겁니다. 곧바로 한국 친구들을 만나야 하나까요~

첫 만남은 눈물나게 그야말로 어색 그 자체였습니다. 밥도 먹었으니 졸리는 것도 당연지사~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견학코스인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도서관은 구산동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저마다의 추억과 삶의 기억을 담고 있는 집들이 모여서 도서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과 소통하고 마을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도서관 사서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책과 사람이 만나 다양한 삶을 펼치는 이곳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도서관임에 틀림없었고 도서관 내부는 어린이도서실, 청소년도서실, 어른들이 독서할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서분의 강의를 열심히 귀담아듣는 우리 아이들도 마을도서관을 견학하면서 분명히 많은 걸 깨닫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 발길을 옮긴 곳은 하늘과 바람과 별이 함께 하는 운동주 문학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운동주시인을 “동선달 꽃과 같은 열음 아래, 다시 한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전시장은 시인채(제1전시실), 열린 우물(제2전시실), 단헌 우물(제3전시실), 별뜨락(휴식공간), 시인의 언덕(산책로)으로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운동주 문학관은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구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압장은 느껴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세상사에 지쳐 타협하면서 비겁해지는 우리 령혼에 운동주의 시는 아름다운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령혼의 물길을 정비해 새롭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찌보면 운동주 문학관은 우리 령혼의 가압장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 녕안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

니다. 우리 녕안 친구들, 자기소개 한번 멋들어지게 하네요~ 짱입니다요~~

두번째 숙소인 여주 썬벨리 호텔 로비에서 빠지면 안되는 기념사진 또 한번 찰칵 남기고요~ 어딜 다녀보나 나중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튿날 아침 조식을 하면서 운 좋게 카메라에 담은 해돋이~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포근한 잠을 자고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향한 곳은 바로 세종대왕릉이 있는 세종대왕유적지였습니다. 조선왕릉은 조선 왕실의 의례서인 “국조오례의”에 근거하여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국조오례의”에는 왕과 왕후를 하나의 봉분에 안장한 합장릉을 기본으로 삼았으나 왕릉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른아침부터 등산아닌 등산을 하면서 해설사분의 설명도 열심히 귀담아듣는 우리 친구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경청하고 또 열심히 등산하여 세종대왕의 숲길까지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 하나 나갑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몇대 왕일까요? ^^* 세종대왕유적지 탐방을 마치고 곧바로 향한 곳은 천년고찰 “신륵사”였습니다.

신륵사에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보물들이 숨어져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다층전탑은 경내의 동남쪽 강가 동산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전탑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은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절벽 아래로 강물이 매우 거세었다고 하는데요. 강 절벽에 만드는 탑은 강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알리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빠질수 없는 점심식사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영양이 듬뿍 담긴 곤드레밥 먹기~ 여기에서 잠깐, 또 한 문제 퀴즈 나갑니다. 곤드레란? 우리가 노래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곤드레만드레의 곤드레일까요? ^^

쏟아지는 졸음을 뒤로 한채 우리는 곧바로 썬벨리호텔 3층 크리스탈 세미나실에서 세종대왕게임(외래어와 중국어 사용 금지^^)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한국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만남에서의 그 어색했던 기색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모듬끼리 너무나도 재미있고 뜻깊은 활동들을 하면서 한결 더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멘토를 하느라 엄청 고생을 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싶어서 군입대 복역 중에 일부러 휴가를 내고 우리들한테 달려온 친구랍니다. 열심히 멘토 역할을 한 권산친구한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떡볶이탐방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둠으로 나뉘어 떡볶이를 직접 끓여서 먹는 소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코스는 바로 경강선 지하철 책읽기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여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왕복 1시간 30분의 시간을 책을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읽기 홍보가 되는 이번 체험활동은 여주에서 매달 말쑤에 빠짐없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책을 읽느라 힘들었을텐데 점심을 빼놓으면 안되겠죠? 오늘 점심 메뉴는 가마뚜껑 삼겹살구이입니다~

맛있는 짬을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센스~ 넘 넘 이쁘지 않아요? *^^*

오후에는 여주시 시장님과과의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일어나 자기의 생각을 답하는 태미령학생~

곧이어 이루어 작가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4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이미 짜여진 가사 1절을 읊고 노래하면서 2절은 자기들의 령감을 살려 직접 써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루리 작가는 중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한테 그림책 한편씩 선물로 주시면서 사인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고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래일이면 곧 헤어질 중국친구들에게 한국친구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와우~ 감동인데요^^*

곧이어 준비된 백하슬기 작곡가와와의 만남~

오늘 우리 친구들이 쓴 자작시를 듣기 좋은 선물로 노래를 직접 만들어주실 분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몇몇 친구들의 자작시~ 우리 함께 감상해볼까요? ^^*

먼저 립연홍 친구가 쓴 시 "모자"와 마지막 무대를 장

식혜준 라녕해 친구의 시 "안녕"을 감상했습니다. 그 짧디짧은 시간에 멋들어진 시를 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의 시는 가사가 잘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백하슬기 작곡가분께서 모두 노래로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비록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새 너무나 많은 정이 들었구나 봐요. 서로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모습들을 보니 저희 선생님들도 가슴이 뭉클해짐을 달랠 길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쉬움이 남는 이별이 더 아름다운 미래와의 만남의 약속 아닐까요? ^^*

마지막까지 감동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신 학도넷 김경숙선생님~ 지난 중국연수에서 초면으로 만나었고 이번이 두번째 만남이었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매 학생들한테 필기책, 공책, 정리책, 도감 등등 책들과 에코백까지 선물해주셔서 학도넷의 따뜻한 마음에 고맙습니다. 멀리서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한걸음에 달려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꼭 만나게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내 밖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문캠프 체험활동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뽐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자기개발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인연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은 내 안의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늘~변함없이~ 화이팅 합시다!!!

이번 캠프에 참가했던 녀안의 8명의 친구들과 강순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의 많은 친구들과 권광선, 김동현 선생님, 권산청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잠재적 독자들 이젠 책도 듣는다

홍성우(청출협대외협력부장/풀빛마케터)

국내 출판시장에서 종이책 시장의 규모는 아직도 독보적이다. 하지만 종이책 기반의 출판산업은 매체의 발달로 전자책, 동영상, 오디오북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오디오북이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유명 배우가 나와서 읽어주는 책부터 대기업 플랫폼 서비스 등이 시장 성장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외에서도 오디오북 시장이 매해 성장하고 있고 유망 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원 시장의 성장으로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듣는 문화 속에서 오디오북은 지속적 성장은 클 것이다. 어찌 보면 음악, 책은 같은 문화사업이었지만 아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음원 시장의 성장만큼 책 시장은 성장하지 못했다. 음악은 생활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가 되었지만, 책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시장의 크기와 속도는 다르지만 음원 시장의 소비자는 우리에게 예비 독자가 될 수 있다. 그 길에 오디오북이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만들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책 읽는 독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책을 듣는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출판인으로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오디오북 시장은 전자책의 시장규모를 넘어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자책은 매체의 발달로 성장했지만 오디오 시장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이 들어있어서이다. 많은 업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에 시장의 미래를 걸고 있다.

앞으로 생활 속에 많은 것이 반영될 것이고 그 속에 오디오북도 녹아들어 갈 것이다. 생활 밀착형 변화 속에 책도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어떤 이들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나왔을 때 종이책 시장이 줄어들 거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대체적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이다. 더 많은 독자에게 더 많은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독자가 아닌 사람을 독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많은 보수적 생각들이 콘텐츠 사업으로 변화해가는 출판 속에서 출판계가 주도하지 못했다. 출판사들이 책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변화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출판계의 성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은 읽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다.



학도넷 소식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8년 12월 12일 2018 학도넷 후원회 밤
- 2018년 12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겨울호 발행(총권 47호)
- 2019년 1월 16일~18일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신입회원 (2018년 12월~2019년 2월)

정회원 : 최봄이 허현주 안정원 서윤주 이민수 황동욱 신영숙 송윤서 유미 김경하 최은규 김경진 정혜련 진은진 김수연
준회원 : 고 은 김미영 신재희 김지순 박현주 윤정숙 이유나 남경화 오계화
웹회원 : 이은주 박현정 이초혜 이성호 김경미 송수정 박우일 임형준 오선영 채경화 책씨앗 박진영 박은빈

회비 및 후원내역 (2018년 12월~2019년 2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곽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시애 김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경진 김경하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선영 김소원 김수연 김심환 김영신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윤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윤서 송혜영 신영숙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 미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미순 이선하 이신애 이영선 이영주 이유정 이은혜 이주영 이진옥 이 현 이현애 이해진 임경순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은희 정해선 정혜련 조영순 주상태 진은진 차진미 채재현 최민영 최은규 하은경 한은미 황동욱 황순영 허지은 허지연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효숙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변영이 백화현 송추향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민수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외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김순정 박은숙
- 연회비 : 문진아(6만) 박영옥(10만)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비룡소(매월 10만) 도서출판 북극곰(매월 3만) 고래가숨쉬는도서관(매월 3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고은(3천) 김미령(3천) 김미영(3천)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김지순(3천) 남경화(3천) 박영혜(3천) 박인자(3천) 박정미(3천) 박중숙(3천) 박현주(3천) 성양기(3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신수인(3천) 신재희(3천) 오계화(3천) 윤정숙(3천) 염효경(3천) 이영희(3천) 이유나(3천) 이인문(3천) 이재경(3천) 이재희(2천) 장벼리(3천) 장한솔(2천) 조성우(3천) 최선옥(3천) 최유미(3천) 최창의(3천) 홍선희(3천)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드르렁(북극곰)/무지개수프(북극곰)/코튼 캔디캔디 뽕뽕(북극곰)/선생님, 한법이 뭐예요.(철수와 영희)/똑같이 똑같이(북극곰)/특종전쟁(별숲)/힘차게 달려라 통일열차(철수와 영희)/백년 후 한성에 가다(별숲)/초록양(샘터)/수상한 알약 티롤(샘터)/조선의 페미니스트(철수와 영희)/선생님,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철수와 영희)/도둑도로몽(양철북)/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창비)/신동방통 흡소핑(비룡소)/우리들의 DNA(바람의 아이들)/독립선언서 말뚝모음(단비)/그날의 메아리(단비)/15세(단비)/까까(북극곰)/우리가 함께 쓰는 물, 흙, 공기(도토리나무)/석호필(도토리숲)/조선의 선비 홍대용(도토리숲)/태극기를 든 소녀(그레이트북스)/특종 공룡이 나타났다(그레이트북스)/달님은 맛있어(그레이트북스)/세상의 모든 국기(그레이트북스)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만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만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

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나는사람들(사)놀이하나는사람들) 계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봄호(고래가 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어린이문화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쓰고쓰게(쓰쓰통권1호) 계간 우리교육(우리교육) 학교도서관저널 동화읽는어른(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에 책읽기 활용 독서관토크(한국어동영상)CD 200개를 직접 제작해 기증해주셨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에 직접 전달하고 일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우편발송료 후원 10만원 박효정(서울 상지초 교사)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8 학도넷 <후원의 밤> 했습니다.

- 언제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9시
- 어디서 :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꿈다'(시청역)
<후원의 밤, 귀한걸음해주시고 후원금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만 : 김보람
- 2만 : 양솔기
- 3만 : 고봉희, 교육공동체넷 최승훈, 권현정, 김경숙, 김동하, 김수현, 김승희, 김옥위, 김자혜, 김정자, 김진영, 김해민, 김홍균, 김희정, 나순희, 단비출판사, 동네책방 개똥이네, 류순봉, 박미영, 박상례, 박은숙, 박정숙, 백경숙, 북극곰출판사 이순영, 송정옥, 신민주, 신정임, 신향경, 안선영, 안희정, 양은영, 오선경, 오희애, 윤소영, 이경자, 이남숙, 이선희, 이영주, 이준영, 이향숙, 이화정, 인디자인 이미영, 장경규, 장부자, 전혜진, 정은희, 정충혁, 정해선, 조선행, 주상태, 천개의바람 최진, 최루시아, 최해숙, 하주희, 한효전, 황진희, 흥부네도서관 이남지
- 5만 : 길벗스쿨출판사 최문영, 문원림, 박임선, 박정해, 최경희, 학교도서관저널 어린이문화분과
- 6만 : 글로연출판사 오승현, 바람의아이들출판사, 박윤희
- 10만 : 그레이트북스출판사, 김경숙, 김동현, 김은영, 김은하, 김중성, 김진희(관악), 류주형, 박영옥, 백화현, 변영이, 보리출판사,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신형란, 양철북출판사, 여주사람들, 유엔미비페 김현주,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 임향녀, 정진수, 청소년출판협의회
- 15만 : 문학동네출판사
- 20만 : 송곡여고 이덕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학교도서관서울모임, 학교도서관저널
- 21만 : 비룡소
- 30만 : 김혜원(학교도서관문화살림), 북극곰출판사
- 50만 : 창비출판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했습니다.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강사 : 임경희 선생님(상지초등학교 교사)
-싸나톨로지스트(Thanatologist 죽음교육연구자)
때 : 2019년 1월 16일(수)~18일(금) 10~17시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70여 명 선생님들이 참가하셔서 진솔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겨울사서연수 후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수첩, 파일/ 보리출판사-개똥이네 놀이터, 달력/ 한울림출판사-아름다운 가치사전 수첩, 무릎딱지 가방/ 고래가숨쉬는도서관-코스모스스쿨

<학도넷 사례공모>

- 한학기 한권읽기 실천사례 공모합니다.
1. 한 책 선정을 위한 교과선생님들의 책모임 활동사례
2. 한권읽기를 실천한 사례(학급전체 한책읽기사례/ 모둠별 한권읽기사례/ 학생별 한권읽기사례)
3. 한권읽기 활동을 지원한 사사선생님들의 사례

4. 그 밖에 다양한 제안, 실천사례, 실패사례 등

대상 : 누구나
참여방법 : 소중한 경험을 편한 입말로 써서 보내 주세요. (연락처 꼭 써주세요^^) (A4용지(글자크기 10) 2매 이상 제한 없음)
접수 : 2019년 5월 28일까지 학도넷 메일로 보내주세요. (hakdonet@hanmail.net)

발표 : 2019년 6월 3일 학도넷 홈페이지

시상

- 1. 으뜸상 : 5명 상장액자와 책 30권
2. 버금상 : 10명 상장액자와 책 20권
3. 나눔상 : 20명 상장액자와 책 10권

시상식 및 장소

선정된 공모사례 시상식은 학도넷 창립 15주년 기념 한학기 한권 읽기 심포지움에서 합니다.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5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학도넷 그림책 연수 '그림책과 인생'

강사 : 김서정(아동문학가, 중앙대 외래강사)
저서 : 『두로크 강을 건너서, 『나의 사직동』 『엔티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캐릭터는 살아있다.』 등 저서와 『100인생그림책』 등 많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일정

Table with 3 columns: 회차, 때, 주제. Rows 1-6 detailing the schedule for the book and life seminar.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때 :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6회

저녁 6시 30분~8시 30분

곳 : 서울NPO지원센터(시청역) 강의실 '주다'

대상 : 그림책으로 나를 찾고 싶은 어른이면 누구나

학도넷 만남과 바람합니다.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서)

<1차 유관순의 스승 김란사독립운동가의 자취를 찾아갑시다.>
찾아가는 곳 : 서울교육박물관-점심-정동교회-이화박물관

강사 : 황동진 선생님(서울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그림책작가/김란사특별기획전기획)
저서 :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초록개구리)》, 《우리

는 학교에 가요(낮은산)》, 《문을 열어요(낮은산)》, 《태극기를 든 소녀(그레이트북스)》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때 :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10~15시

<2차 생존해 계신 여성독립운동가 오호욱지사를 만나러 갑니다.>

강사 : 이윤옥 선생님(서간도에 들꽃피다 1-10) 200여 명의 여성독립지사를 발굴하고 정리하신 이윤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찾아가는 곳 : 중앙보훈병원

때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14~17시

학도넷 창립 15주년 기념 한학기 한권읽기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합니다.

일시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때 : 오후 1~5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